'DJ 고향' 하의도 경남 '김해의 섬' 됐다

신안·김해 결연 1돌 맞아 선포 김대중-노무현 조형물 제막 '올해의 책' 500권 기증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의 섬'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뜻 을 기리고 잇기 위한 이벤트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과 김해시 는 지난 14일 신안 하의도 태극광장에서 자매결연 1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 해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 하고, 상징 조형물을 제막했다.

제막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허성곤 김 해시장, 양 기초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징 조형물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 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의 스케치 장면 을 본떠 철제 조형물로 제작하고 기둥은 화강석으로 마무리했다.

석제 기둥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와 노무 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따뜻 한 글귀와 어록을 새겨 두 대통령의 뜻을



신안군과 김해시가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 태극광장에서 '김해의 섬' 선포식을 가졌다

기렸다.

이날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을 위해 신 안을 방문한 허성곤 김해시장 등 16명은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

신안군과 김해시는 더불어 잘 사는 영• 호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으로 지난해 9월24 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신안군은 옹진군, 경산시, 강남구, 마포 구, 고양시, 광양시, 울릉군, 하남시, 평택 시 등 11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화교류와 도서 문제 공동 대응, 향우회 와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

김해시는 앞서 지난 7일 자매결연도시 신안군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면' 150권, '한 스푼의 시간' 210권, '두 배

로 카메라' 140권 등 올해의 책 총 500권 을 기증했다. 기증도서는 신안지역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활용된다.

박우량 군수는 "평화의 섬 하의도를 김 해시의 섬으로 선포함으로써 하의도를 찾 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열정으로 평화와 번영의 영·호남시대를 계속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외딴섬 5곳 식수난 던다

금일읍 충도 등 내년까지 214억 들여 상수도 공급



완도군이 외딴 섬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 금 일읍 충도마을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섬지역의 고질적 식수난 해 결에 나섰다.

완도군은 금일읍 충도 등 5개 외딴 섬 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금일읍 충도·신도, 군외면 사후도·고마도, 금당 비견도 등 외딴 섬

내년까지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 해저관로 7.9km, 육상관로 6.4km와 가압 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군외면 사후도・고마도를 시 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 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생활용수를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했던 것에 서 벗어나 2022년부터는 지방상수도에 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저관로를 통해 외딴 섬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 선하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마을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목포·완도·진도·신안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협약

안군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뭉쳤다.

이들 4개 시·군 단체장은 15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세계 섬 엑 스포 유치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서남해안 섬 벨트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4개 지역은 섬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이행을 목표

대한민국 서남해안 다도해를 품은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 로 상호 협력하고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도 모, 섬 관광 활성화·공동 마케팅 강화 등을 위해 힘을 합친다.

> 이를 위해 섬 발전 정책 관련 예산을 분담하는 한편 국비 확보 를 위한 공동 건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연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청년구직지원금 24일 신청 마감…50만원 지원

영광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다.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된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 중인 청년이어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www.youthcenter.go.kr)를통해받는 과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오는 11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이 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유를 알 려줄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 금호호·영암호·고천암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해남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 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차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 고천암, 금호 호 3개 지역이다.

해남군은 진입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과 군 거점소독시설 을 통한 소독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움 간판, 플래카드 등도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 도로변 133곳에 설치해 출입 차단을 안내하고 있다.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 사유를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 이동로인 러시아, 대

만 등 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철새가 남하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광



해남군은 AI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영암호, 고천암,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해남군 제공〉

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소독을 하고 있다. 축산사업소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 는 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차단을 선제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 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방역 대책을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 국도·지방도 등 260km 일제 정비

영광군은 국도·지방도·군도 등 총 260km의 도로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 울철 강설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지역내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260km 중 도로정비가 시급한 도로시설물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포장도, 교량, 배수시설,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도로표지, 안전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영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 포트홀 정비, 길 어깨 및 토사측구 정비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오귀동 영광군 건설과장은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파손된 도로포장 등을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